범어사 선명상 축제, 바다·AI 만나다

9월 5일 '범어사 BEO 선명상 힐링페스타'

'부산형 K-웰니스' 지평
일출 SUP 명상 등 다채
'선명상 콘서트'도 '주목'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2026 선명상축제, 부산 범어사' 가 오는 9월 5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및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범어사 비오마인드가 진행한 템플레킹에 참여한 부산 시민들이 명상을 하는 모습.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의 선명상이 부산 광안리 바다와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만난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조계종 미래본부와 범어사가 주관하는 '2026 선명상축제, 부산 범어사'가 오는 9월 5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및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축제 주제는 '금정산 BEO 선명상 힐링페스타 푸른 숨, 깊은 쉼'이다.

현대인에게 다소 어렵게 다가왔던 사찰의 선명상을 자연, 음식, 음악, 예술 등 일상적인 요소와 결합해 대중성을 높였다. 특히 금정산의 고즈넉한 숲과 광안리의 역동적인 바다를 하나의 수행 동선으로 연결하며 '부산형 K-웰니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축제의 백미는 공간을 넘나드는 '크로스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이른 새벽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패들보드(SUP) 위에 누워 파도와 일출을 느끼는 'BEO Floating(일출·SUP 명상)'이 진행된다. 바다 위에서 호흡을 가다듬은 참가자들은 전용 셔틀버스를 타고 금정산 범어사로 이동해 본격적인 산사 명상을 이어간다.

인공지능을 접목한 '마음처방전'도 단연 눈길을 끈다. 참가자가 자신의 성향(MBTI)과 현재의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24가지 마음 유형 중 하나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처방을 제공한다. 처방전에는 적합한 선명상법과 차, 향뿐만 아니라 불교적 지혜가 담긴 '나만의 화두'가 포함된다. 단순한 기술 체험을 넘어, 발급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스님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도록 이끈다.

오후에는 범어사의 독자적인 웰니스 브랜드 '비오마인드(BEO Mind)'를 다각도로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사찰음식 공양을 시작으로 푸드테라피, 슬리핑 소리명상, 숲길 걷기명상 등 일상의 모든 행위를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선명상을 특정한 형식이나 공간에 가두지 않고 누구나 친숙하게 누릴 수 있는 생활 문화로 확장하려는 원력이 담긴 기획이다.

축제의 대미는 오후 6시 30분에 열리는 선명상 콘서트 '마음이 머무는 밤'이 장식한다.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의 맑은 음성과 클래식 연주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스님의 법문과 명상 지도가 더해져 참가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범어사는 "바다 위에서의 호흡부터 산사에서의 걷기까지, 멈춤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범어사의 1300년 수행 전통과 금정산, 광안리라는 부산의 자연환경을 융합해 한국을 대표하는 선명상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글 언해불서, AI 입고 K-컬처로 도약한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8월 13일
아카이브 사업 성과 발표 학술대회
시맨틱맵 시연·AI 서사 영상 공개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는 8월 13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2년 차 성과 발표 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조선 전기에 간행된 한글 불교 문헌들이 첨단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만나 전 세계인이 향유할 수 있는 개방형 문화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소장 김일환)는 8월 13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2년 차 성과 발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계종, 동국대, 통도사가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글 너머 온(On), 불(佛)을 켜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년간 축적된 불교한글문화유산 디지털화 성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사중 스님들과 학계 전문가,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전통 문헌의 현대적 변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성파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교계가 한글 창제와 보급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를 짚었다.

성파 스님은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 이전부터 이미 불교계 내에 불전 언해 작업이 존재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차곡차곡 쌓여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한글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가 공헌한 바를 세계인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사업은 세종에서 성종 대에 간행된 〈석보상절〉 등 언해불서 18종 88권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되는 대규모 지식 정보화 프로젝트다.

학술대회 1부 성과 보고에서 하정수 총괄팀장은 2년 차 사업을 통해 신번역 8종 23권 및 서지 조사 정밀 촬영 7종 33권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데이터의 시각화 및 영상화 결과물이었다. 통도사와 서울 미타사가 보유한 문헌과 유물 정보를 의미망으로 엮어낸 '시맨틱맵'이 시연됐고, 〈월인석보〉 권8의 '안락국태자경' 서사를 생성형 AI로 구현한 2분 분량의 영상물이 최초로 공개돼 박수를 받았다.

2부에서는 고문헌을 디지털 지식으로 변환하는 세부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최애리 박사가 15세기 불교한글 문화유산의 지류 물성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김소정 박사는 목판과 금속활자 등 인쇄 방식의 차이가 AI 광학문자인식(OCR) 판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서소리 박사는 방대한 불교 문헌을 AI 기반 지식정보 아카이브로 구현하는 실질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사업단은 이번 2년 차 인프라 구축을 발판 삼아 3년 차부터는 대중 참여형 프로젝트로 외연을 확장한다. 특히 청년 세대의 유입을 위해 '제1회 대학생 불교한글문화유산 활용 AI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진이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작자들이 숏폼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을 자유롭게 제작하게 함으로써 플랫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불교문화 크리에이터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집에 가기 아쉬워요" 홍법사 어린이 단기출가

8월 13~15일, 초등학생 26명 참가
심산 스님 "행복 위해 배려 배워야"
청년 선명상·어린이 영어캠프도



홍법사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경내에서 '제15기 어린이 작심단기출가' 를 진행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가 다양한 수련회와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교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법사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경내에서 '제15기 어린이 작심단기출가'를 진행했다.

'나를 사랑하고, 친구를 배려하는 작은 수행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단기출가에는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26명이 참가했다.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은 사찰에 머물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비심을 다졌다.

입재식에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법문으로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심산 스님은 "작심(作心)이란 마음을 짓는다는 뜻으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세우고 끝까지 정진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잘 노는 것도 공부이며, 나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고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참된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규칙적인 사찰 일상 속에서 어린이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및 명상 활동으로 채워졌다.

참가자들은 사찰예절 습의를 시작으로 심리전문가와 함께하는 '마음지도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보았다. 이어 마음챙김 108배와 아로마 향기명상, 싱잉볼 자비명상에 참여하며 명상을 체험했다.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이어진 다음 날에는 주지 스님과 함께하는 잔디마당 걷기명상, 찬불가 및 싱잉볼 연주 창작, 잔디마당 물놀이, 전통 발우공양, 원예공예 '마음화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사찰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는 '알아차림 먹기명상'과 주지 스님과의 차담, 싱잉볼 사운드테라피를 진행하며 2박 3일간의 여정을 회향했다.

일정을 마친 어린이들은 "사찰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할 만큼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홍법사는 8월 21~23일에도 2박 3일간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2026 대학생 선명상' 수련회를 개최했다.

8월 22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 해군과 함께하는 영어캠프'도 열렸다. 이번 영어캠프는 미 해군 참가자 28명이 함께하며, 영어 학습과 문화교류를 결합한 체험형 캠프로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교사 마음 돌볼 때 교육 힘 깊어져"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제5회 교사직무연수 개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은 8월 3일부터 10일까지 '괜찮지 않아도 돼!'를 주제로 제5회 교사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2박 3일간의 집중 교육과 후속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3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괜찮지 않아도 돼!'라는 주제에는 학생과 학교를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은 뒤로 미뤄왔던 교사들에게 스스로의 마음부터 돌아보자는 의미가 담겼다.

첫날에는 '고정관념 내려놓기'를 시작으로 '괜찮지 않아도 돼!', '자유로운 나 찾기', '마음을 여는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마음의 활용과 원리', '무지의 자각',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등을 주제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특히 촛불명상을 통해 자신에게 본래 갖춰진 밝은 마음을 되새기고, 마음의 평온과 알아차림을 일상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새겼다.

셋째 날에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변화하는 나 찾기' 등을 통해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익혔다. 또 '실천 나누기'에서는 마음공부를 학교와 가정,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각자의 실천 방향과 다짐도 함께 공유했다.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교사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돌볼 때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교육의 힘도 더욱 깊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마음의 힘을 기르고 교육의 본질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천만사, 한국불교 세계화 앞장

스리랑카·에티오피아 대사 초청
"국경 넘어 우호·평화 이어가길"



울산 천만사(주지 향덕 스님)가 주한 스리랑카와 에티오피아 대사 일행을 잇달아 초청해 한국 불교문화를 알리고 국가 간 우호와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천만사는 8월 15일 마리무투 카루파야 파뜨마나단 주한 스리랑카 대사 일행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파뜨마나단 대사 일행은 향덕 스님의 안내로 대웅전을 참배한 뒤 경내를 둘러보며 한국 사찰의 전통과 불교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차담을 갖고 양국 불교계의 교류를 비롯해 문화적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향덕 스님은 "이번 인연을 계기로 한국과 스리랑카가 더욱 가까워지고 양국 불교계의 교류와 협력도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뜨마나단 대사는 "양국의 우호와 불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8월 6일에는 데시 달키 두카모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와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자녀 등 가족 일행을 초청했다. 두카모 대사 가족은 대웅전 참배를 시작으로 소원돌 들기와 사찰음식 공양, 인근 편백자연림 산책 등에 참여하며 한국의 사찰문화를 경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포교사단, 범어사 하안거 대중공양

8월 18일, 범어사 공양간서
70일 법화경 독송하며 모연



조계종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박종안, 이하 부산포교사단)이 병오년 하안거 해제를 앞두고 금정총림 범어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부산포교사단은 8월 18일 범어사 공양간인 상후원에서 병오년 하안거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이날 대중공양에는 박종안 단장을 비롯한 임원 및 운영위원 15명이 동참했다. 포교사들은 직접 음식을 장만해 스님 100여 명에게 공양을 올렸다.

부산지역단 소속 34개 팀 포교사들은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70일간 〈법화경〉을 독송했다.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모금함을 설치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대중공양을 회향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1년째 이어진 백중 자비나눔

울산 정관암, 8월 19일
어르신 700명에 공양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 스님)이 백중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을 실천했다.

올해로 21년째 백중 나눔보시를 이어가고 있는 정관암은 8월 19일 울산 북구와 남구 지역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700여 명에게 떡과 두유를 전달했다.

주지 대활 스님은 "백중은 부모와 조상의 깊은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돌려주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전해지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